삼성전자·기아차·효성 동반성장 잘했다

중소기업과 상생노력
동반성장위 최우수·우수 선정
현대삼호重도 최우수

광주·전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현대삼호중공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계량화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려 최우수 명예기업에 선정됐고, 기아차와 현대삼호중공업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포진했다.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13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19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7개, 42개사였고,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다.

기아차와 삼성전자,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에 사업장을 둔 이들 기업은 '최우수' 등급 19개 기업에 포함됐다. 3개 기업 외에도 삼성전기, 코웨이, 포스코, 현대다이모스,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전자, LG CNS, SK건설, SK종합화학, SK텔레콤, SK C&C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전자를 비롯,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포스코, 현대미포조선,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효성은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우수로 한 단계 뛰어올랐다.

최하위인 보통 등급은 농협유통, 덕양산업, 동부제철, 동원F&B, 롯데홈쇼핑, 에스앤티모티브,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태광산업,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한솔테크닉스, CJ오쇼핑 등 14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유통과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한국쓰리엠 등 5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낙제점을 받아 동반성장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점수를 토대로 산출됐으며 지금까지 4번의 평가가 있었다.

동반위 관계자는 "지수평가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다른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앞장서 실천하는 기업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에 포함된 대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해 해당 대기업의 향후 동반성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74.20 (+13.71) 금리 (국고채 3년) 1.79%

▲ 코스닥 742.27 (+9.23) ▼ 환율 (USD) 1115.50원 (-9.80)

대한지적공사에서 사명을 바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LX공사 제공〉

대한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새출발

전북혁신도시 본사서 출범식

한국국토정보공사(LX·옛 대한지적공사)가 최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국토정보전문 기관으로의 개막을 알렸다. 앞서 지난 6월 4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관련 3법 시행에 따라 사명이 38년 만에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됐다.

LX공사는 출범식에서 "국토·공간정보와 신기술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출범식 이후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사업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5월부터 LX공간정보연구원은 무인자동차 지능화를 위한 '자율주행 스마트카 차량지능화 기술분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행정기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국토공간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통합 포털'사업을 시작한다. 또 연속지적도 기반의 공간정보활용 기본지도 구축 사업인 LX기본공간정보 사업도 곧 착수한다.

김영표 LX공사 사장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스스로 혁신해 국민과 함께 돈 버는 국토정보를 만들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맞벌이 가구 광주 46%, 전남 56%

전국 맞벌이 가구 43.9%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전남 지역은 10가구 중 5가구, 광주 지역은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지역 맞벌이 비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광주는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 중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맞벌이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유배우 가구(가구주의 혼인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가구)는 44만8000가구로 이 중 25만3000가구(56.5%)가 맞벌이가구(유배우 가주 중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가 취업자인 가구)로 집계됐다.

전남 지역 맞벌이가구 비율은 제주(61.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으며, 전년 10월 기준 55.7%에 비해 0.8%포인트 높아졌다.

광주 지역은 유배우 가구 35만1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16만1000가구(45.8%)로 서울(37.8%)을 비롯한 대전(44.8%), 대구(41.7%), 인천(40.7%), 울산(37.9%), 부산(37.3%) 등 특·광역시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10월 44.2%에 비해서도 1.6%포인트나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맞벌이 가구가 다른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남편과 아내 모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구'가는 1년 만에 13만가구 이상 늘어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외벌이만으로는 사교육비 등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데다, 여성의 취업 기회가 확대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6월 광주 집값 0.71% 상승 … 전국 2위

최근 주택 매매·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 광주의 집값은 0.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5월 대비 0.38% 상승했다. 메르스 사태와 계절적 비수기로 매수 문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전세의 매매 전환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폭이 지난달 0.34%보다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0.91%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시(0.71%), 서울(0.50%), 경기(0.48%), 제주(0.45%), 인천(0.44%), 부산(0.39%) 순이었다.

전세는 물건 부족이 이어지면서 5월 0.44%보다 높은 0.49% 상승했다. 역시 대구시가 0.83%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시(0.81%)와 경기도(0.74%), 서울·인천(0.70%) 등도 오름폭이 컸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삼성전자 로봇청소기 파워봇 3종 출시 삼성전자가 지난 30일 진공흡입이 가능한 로봇청소기 '파워봇' 신모델 3종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더욱 강력해진 흡입력과 포인트 클리닝 기능 등을 갖췄으며 디자인도 한층 새로워졌다. 〈삼성전자 제공〉

■ 새얼굴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참여지분 확대"

이 권 수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지역건설업체의 공사물량을 확대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침체에 빠진 지역건설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30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11대 회장에 취임한 이권수(57) 고운건설 대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해 수주물량을 확대하고 표준시장 단가제도의 정착을 통해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원·하도급자와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주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특히, 투명경영과 나눔경영으로 사회공헌사업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건설업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